

# 망상 소멸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러므로 일체 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천상·아수라·지옥 등의 육도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무심을 배워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고 분별망상을 버치 않으면, 나도 남도 없고, 탐진(貪瞋)도 없으며, 증애(憎愛)도 없고, 승부도 없다.

만법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것은, 앞에서 본 대로 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면 모두 더불어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마음을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도 윤회계도 결국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이니, 한 마음 돌이키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만다. 바깥경계의 모든 인연들을 당장에 쉬어서 무심하기만 하면, 천 가지 계산 만 가지 사랑 [天計萬思量]이 한 순간에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이다[紅爐一點雪]. 하지만 무심해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이기 때문에, 저절로 무심해져야지 무심해지려고 조작해서는 안 된다.

허다한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自性)은 본래 청정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될 것이다.

허다한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직하여 무심해지는 것이다. 마음자리는 망상을 없애고 없애지 않고 관계없이 본래 청정하기에, 굳이 망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망상을 없애고 난 뒤에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상과 관계없이 당장 무심해져서 본래 청정한 실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미련하게 망상과 싸우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끝나지 않는다. 그 싸움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나무열매를 먹고 풀을 씹는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두 싣된 수행이라고 한다.

불법은 자기 마음을 알자는 것이지, 난행(難行) 고행(苦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육조 스님도 견성을 논할 뿐이지, 선정 해탈을 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견성에서 전도공성에서 깨어나자는 것이지, 꿈속에서 선정과 해탈을 지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백운(白雲)이 흩어지면 청산(靑山)은 절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괜히 조작하여 선정이나 해탈이라는 구름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조작하면 곧 불이법(不二法)에 어긋나므로,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수행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싣된 것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천마외도(天魔外道) 수륙제신(水陸諸神)이 되고 말 것이지,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 지공이 말하기를, '본체(本體)는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인데, 어찌

##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2)



범이사 주지

경계의 모든 인연들을 쉬어서 무심하기만 하면, 천 가지 계산 만 가지 사랑이 한 순간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이다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열매 먹고 풀을 씹는 입는다 해도 자기 마음 알지는 못할 것이다.

불법은 자기 마음 아는 것이지, 난행·고행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윤회계를 벗어나라는 것이다.

좋은 꿈 꾸라는 것이 아니라, 잠 깨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그림 · 박구원

문자 속에서 구할까?' 하였다.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아서 사랑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유야 거사는 말하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앉아누워서 반연을 모두 쉬어 망상이 그쳐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보리(菩提)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온갖 알음알이나 신통을 배워 부린다면, 그런 사람은 마왕 파순의 권속이 되어 공부인의 바른 수행을 방해하거나 싣된 때 빠져 땅과 물의 집신이 되고 만다. 공부의 방향을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데 두어야지, 자칫 어리석게 밖으로 구하면 공자(窮子)가 되어 오랜 세월 거지생활을 하며 헤매게 된다. 자기 마음은 본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세삼 수행을 따로 가자 할 것이 없다. 본래청정심을 믿고 모든 구하는 마음을 접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 멍충이 같겠지만 그 안에는 보리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달마대사도 '밖으로 온갖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험막이지 말라.[外息諸緣 內心無喘] 고 당부했다. 고인들은 한결같이 공부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병들어 앓아누운 유마할처럼, 복잡한 반연을 쉬고 사랑분별을 그쳐버리면, 그 자리가 연꽃이 피는 정토로 드러난다. 그런 다음에야 온종일 분주해도 실제로는 조금도 분주한 바가 없으므로, 평상심으로 무애자재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지러워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때가 비록 삼승(三乘) 사과(四果)

십지(十地)의 모든 지위를 배워 이르렀다 해도, 끝내 범성(凡聖)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모든 행위는 끝내 무상(無常)으로 돌아가고, 세력도 모두 때가 되면 끝나고 만다. 마치 공중으로 쓴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에도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의 윤회로 다시 돌아오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통만 받을 뿐이어서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를 얻고, 나아가 보살의 십지를 얻는다 하여도 끝내 범성의 경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생전에 복덕을 지어 윤회계의 상위층인 천상에서 복락을 누린다고 해도, 지어놓은 것을 다 까먹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윤회계 안에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벗어나라는 것이다. 잠속에서 좋은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잠을 깨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잠시 즐거운 꿈을 꾸다 하더라도, 잠이 지속되면 결국 악몽이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하여 무심을 지으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조작된 무심은 결국 다시 깨지고 분별망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심·유심을 벗어난 본래무심을 증득하라는 것이다. 한 번 잠에서 깨면 늘 드러난 이 일 외에 달리 다른 일이 없다. 공부인이 잠시 무심의 맛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치로 따지려하면 즉시 생각의 구름 속에 갇히게 되어 다시 잠잠해지고 만다. 뭔가 경험했다더라도 모두 내려놓고 세월을 보내며 기다릴 줄 알아야, 확철하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분이 생기는 것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서, 읽고 외우며, 공양케 하겠습니다. <무량의경(無量義經)>

### <금강경>의 마지막

부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실까? 경전의 말미(末尾)를 한번은 눈여겨 볼 일이다.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지 말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금강경>의 경우에는 "일체 무든 유위법은 꿈·허깨비·물거품·그림자·이슬·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표준 금강경)라고 하는 결론적 말씀으로 끝난다. 아무래도 <금강경>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전하겠다"는 뜻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앞에서 인용한 계승에 뒤이어서, 경전 편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장로와 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한문으로는 '신수보행(信受奉行)'이라 한 그 말씀 말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 실천수행의 내용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중생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분명히 그러한 해석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어쩌면 그보다는 "일체 모든 가르침을 공(空)이라"고 관찰하는 중도(中道) 내지 공관(空觀)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렀다는 뉘앙스가 더욱 강한 것 같다. 그 점은 숨길 수 없다.

### <무량의경>의 마지막

<금강경>의 마지막 장면과는 현저히 다른 경전의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무량의경>과 같은 경우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자. <무량의경>의 마지막 장면 역시 부처님의 당부말씀이 제시된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 경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내고 가르침과 같이 수행하며,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서 은근한 마음으로 윤회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며, 읽고 외우게 하고, 베끼게 하며, 공양케 하라." 이러한 정도만 해도, <무량의경>의 마지막

말은 <금강경>의 그것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놀라움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더욱 증폭된다.

"오직 세존께 원하옵나니, 격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마땅히 원력을 세워서 널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서, 읽고 외우며, 공양케 하여 이 경전의 위대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법을 들은 자들의 다짐이다.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나 스스로만 기뻐하며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널리 모든 중생에게 다시 전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가르침대로 수행케 하여 부처님 말씀의 위대한 힘을 실증(實證)케 하겠다는 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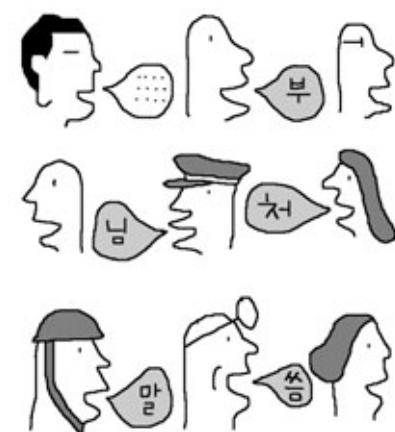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일반적인 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부와 다짐의 쌍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별히 나는 법을 듣는 자의 다짐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말만명의 보살마하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보기로 한다. "아, <무량의경>의 이 말씀은 다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말씀이다"라고 느끼고자 한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강요(強要)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유해 달라"고 말이다.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을 대신해서 팔만보살이 행했던 그 다짐을 다짐해 주고 실천해 주기를 강하게 요청한다. <무량의경>의 마지막은 나의 강요에 '작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양국)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양국)

▶ 국제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롬바이 - 엘로라 / 아진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카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인천

###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양국)

▶ 국제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위암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이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아(시기리아성채)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장기일정은 항공사 및 지역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1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2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3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가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4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취산(영취산)이 있는 곳.
- 5 바이살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6 쿠시나카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7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름뿔이 있는 곳.
- 8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